

인천역~석탄부두 간 폐선로 활용 방안

석종수

연구책임

석종수

교통물류연구부 선임연구위원

032-260-2652

sheok@ii.re.kr

열람방법

인천광역시 행정자료실

인천연구원 자료실, 홈페이지(www.ii.re.kr)

1. 폐선로의 적절한 활용 필요

- 인천항으로 수입되는 석탄을 운송하는 역할을 하던 “인천석탄부두 청원선”이 2022년 9월 21일 공식적으로 폐업하면서 인천 석탄부두와 인천역 간 화물철도 전용선 구간이 유휴 용지로 방치됨
- 인천시가 이 구간을 활용해서 부평연안부두선, 제물포연안부두선 트램 사업을 하고자 하지만, 사업 시행 시기가 불투명함
- 철도 폐선 용지를 그대로 방치하면 사회적 혐오시설이 될 수 있어 해당 용지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
- 이 연구는 부평연안부두선 공사가 시작하기 전까지 폐선된 석탄부두 전용철도 터(이하 석탄부두선)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임

2. 석탄부두선 용지 관련 현황

1) 연안동 유동 인구 특성

-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1,072만 명이 연안동 지역으로 유입했으며, 월평균 179만 명 정도가 유입함
- 1일 평균 유동 인구는 10만 명 수준이며, 겨울철에 해당하는 1월과 2월에는 9만 명 수준이지만 날이 따뜻해지는 5월과 6월에는 11만 명 수준으로 증가함
- 월간 유입 인구는 50대가 약 270만 명(25.1%)으로 가장 많고, 40대가 약 236만 명(22.0%), 60대가 약 232만 명(21.7%)임
- 월간 유입 인구는 남성이 전체 유입 인구의 65.2%인 약 700만 명으로 여성보다 많음

- 연안동에는 주간 시간대에 해당하는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의 유동 인구가 많으며 야간 시간대에는 유동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함
- 주중에 해당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일 평균 10만 명 이상이 활동하지만,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유동 인구가 10만 명 미만으로 감소함
- 인천시와 수도권 서부권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로 유입함

2) 관련 계획

- 검토 대상이 되는 폐선로는 인천시가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는 제물포 르네상스의 핵심 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주변에 각종 개발계획이 있음
- 원도심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종합기틀을 마련하고,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이 수립 중임
-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서는 청원선을 5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레일 파크로 활용하는 구상을 함
- 도시철도서비스로 신교통시스템을 제공해서 원도심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평연안부두선과 제물포연안부두선 트램을 건설할 계획임

3) 토지 이용 특성

- 석탄부두선 용지는 법정동으로는 향동7가, 신생동, 향동1가, 향동2가, 북성동에 속하고, 행정동으로는 신포동과 연안동, 개항동에 속함
- 석탄부두선 용지는 대부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, 일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인천역이 있는 지역은 제2종 주거지역임
- 인천역 경계를 벗어난 석탄부두선은 총 42개 필지에 속해 있고, 소유자별로는 국유지 22개 필지, 법인 소유 19개 필지, 개인 소유 1필지로 구성됨

3. 폐선로 활용 사례

- 각 나라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과 특수성, 법과 제도 등에 따라 폐철로를 활용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, 폐철로를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사례에는 공통된 점이 있음
- 폐선로와 관련된 기존의 시설물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로 활용한 경우가 대체로 성공적인 사업임
 - 철로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선형 토지의 특성을 살려서 시설의 이용을 극대화하는 사례가 많음
- 폐선로 주변의 관광 자원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선형의 좁고 기다란 철도 용지의 한계를 극복한 사례들이 비교적 성공적이고 지역의 활성화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
- 철도시설 소유 주체와 폐선로 소재지의 자치단체가 원활하게 협력할 때 사업이 성공적인 경우가 많음

4. 석탄부두선 용지 활용 방안

1) 설문조사 결과

-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연안동 지역에 있는 S 카드사 가맹점에서 매출 이력이 있는 720명을 대상으로 석탄부두선 용지 활용 대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
- 유효 응답자의 27.6%는 폐선로를 공원이나 산책로로 활용하기를 희망하며, 캠프장(14.9%), 대중교통 통행로(14.2%), 레일바이크(13.9%), 철도 테마파크(13.8%), 주차장(13.8%)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비슷한 비율임
- 석탄부두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만으로 한정해서 분석하더라도 공원이나 산책로를 만들자고 제안하는 사람의 비율(28.5%)이 여전히 높지만, 대중교통 통행로를 만들자는 의견(18.5%)도 상당히 많음
- 연안동 지역에 거주하거나 상주하는 사람들로 한정해서 보면, 공원이나 산책로를 만들기를 희망하는 사람의 비율(22.8%)과 대중교통 통행로를 만들기를 희망하는 사람의 비율(20.3%)이 비슷함

-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폐선로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거나 연안동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사람들은 공원이나 산책로와 같은 녹지공간을 만들거나 대중교통 통행로를 만들기를 희망함

2) 석탄부두선 용지 활용에 대한 평가 및 최종방안

- 주어진 여건과 전제 조건을 만족하는 시설 활용 대안은 교통 통행로, 공원·산책로, 주차장, 레일바이크, 캠프장, 철도 테마파크 등 6개이며, 교통 통행로와 주차장을 성격에 맞게 세분해서 총 11개의 대안을 평가함
- 평가 요소는 시설의 필요성, 시설의 주민 수용성, 시설이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(경제성, 편의성, 편익성 등), 시설을 위한 용지의 확보 용이성, 중구의 사업추진 가능성 등 5개로 함
-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버스 통행로 대안이 모든 평가 요소에서 긍정적이어서 가장 우수한 대안으로 평가되며, 영국 케임브리지의 Guided Busway를 모델로 한 버스 전용도로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함
 - 궤도 교통 통행로 대안은 중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
 - 자전거 전용도로, 공원·산책로, 승용차 주차장도 우수한 대안이나, 지역이나 중구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됨
 - 화물차 주차장은 연안동 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시설이지만, 주민 수용성이 낮고 파급효과도 크지 않을 것임
 - 캠핑카 주차장은 급증하는 캠핑카 주차 수요를 고려하면 필요성이 매우 높지만, 주민 수용성이나 파급효과 요소에서 낮은 평가를 받음
 - 수소 충전소는 장래의 수소연료전지차 증가와 환경친화적 교통 정책 등을 고려하면, 필요성이 충분하고 사업성도 있지만 주민 수용성이 매우 낮은 시설임
 - 레일바이크나 철도 테마파크는 주민 수용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, 나머지 평가 요소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움

- 캠프장은 주민 수용성, 용지 확보 가능성, 사업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, 필요성과 파급효과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채택되지 않음

5. 버스 전용도로 조성의 상세 방안

1) 버스 전용도로 노선

- 석탄부두선 폐선로 부지를 활용한 버스 전용도로는 인천역에서 연안여객터미널을 기점으로 하며, 인천역, 신포역, 종합어시장, 연안여객터미널 등 4개소에 정차함
- 단선 노선으로 운영하지만, 노선의 중간 지점에서 버스가 교행할 수 있도록 함
 - 노선 중간 지점인 인천항 내항에는 버스가 교행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 부지가 있음(인천항만공사와 부지 사용을 위한 협의가 필요함)
- 노선 중 철도 레일이 있는 구간(청원선 구간과 축항선 구간)은 Guided Busway로 하고, 궤도가 없는 구간은 일반 버스처럼 운행함

2) 버스 전용도로 외의 부지를 공원 등으로 활용

- 버스 전용도로를 만들고 남는 유휴부지는 주변의 계획과 토지의 여건을 고려해서 주민 산책로나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음
- 조차장 부지는 내항 1·8부두 개발, 답동사거리~신포역 구간 지하 공공보도 조성 사업 등과 연계해서 문화복합시설 용지로 활용할 수 있음

이 보고서는 인천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보고서를 요약한 것입니다.
자세한 내용은 인천연구원 홈페이지(www.ii.re.kr)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.